



행복한 교육을 이끄는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에듀넷·타-클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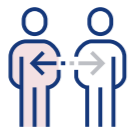
www.edunet.net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한손에!



교육정책과 교육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한눈에!



선생님들을 위한 소통,
자료 공유 커뮤니티 나눔공간!



소식 정보 및 인기키워드!

행복한 교육



CONTENTS

April 2018 Vol. 429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특별기획**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 04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걷는 봄길
- 06 공립 대안학교 강원 가정중학교
- 10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 12 다문화교육은 우리 모두의 교육이다
- 14 **세계의 교육 변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학업중단예방체계



현장이야기

- 16 **지금! 혁신교육**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웁니다"
- 20 **삶과 교육** 욕심용 대구보명학교 교사
- 24 **이런 수업 어때요** 강릉 남호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 28 **아하! 진로체험** 올림픽으로 보는 직업 세계
- 32 **클로즈업** 4월은 과학과 놀자!
- 34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로
희망을 전하다
- 36 **명예기자 리포트** EBS 꿈 장학생, 어려움 딛고
희망 찾다 外

정책이야기

- 42 **정책N전망**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성교육이 갈 길
- 44 **김상곤의 행복한 교육편지** 공평무사한 봄빛처럼 정의로운 교육
- 46 **정책카툰** 특수교육
- 48 **이슈 I** 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 콘서트
- 50 **이슈 II** "대한민국 독도를 배웁니다"
- 53 **초점, 4차 산업혁명** '모두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
- 55 **꽃 피는 교육자치** 부산 / 강원 / 세종 / 전남 / 충남



정보이야기

- 59 **대학교육** 대학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 62 **교육 썰전** 학생부종합전형
- 62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 64 **학종의 규범적 가치와 실현가능성**
- 66 **학급운영노트** 학부모와의 관계,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 68 **아이의 다리방** 가출을 일삼는 지식이
- 70 **이야기 인문학** 칸트의 한계철학과 함께 살아가기
- 72 **일상의 쉼표** 진해 군항마을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화천 사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인지메이커'를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학생들의 손끝에 걸린 별이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듯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특별기획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일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앞세우고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랑의 길’을 걸겠노라고 선언하였다.

대안학교에서 꿈을 찾는 아이들의 이야기,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한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 정책들을 살펴본다.

1.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걷는 봄길

2. 공립 대안학교_ 강원 가정중학교
우리는 좋은 이웃, 우리가 희망이다!

3.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4. 다문화교육은 우리 모두의 교육이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걷는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스스로 봄길이 되어 /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스스로 사랑이 되어 /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평소 애송하는 정호승의 시 <봄길> 일부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봄은 순식간에 떠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걷는 길은 사시사철 ‘봄길’이다. 그 봄길은 곧 ‘사랑의 길’이다.

교육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는 일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새 정부 들어 서면서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앞세우고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랑의 길’을 걸겠노라고 선언한 것이다.

‘사랑의 길’을 걷는 교사

그렇다. 교사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지향한다. 진정한 교사는 인류의 성자들이 걸었던 ‘사랑과 자비의 길’을 통해 인류 평화와 만민 평등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물론 이 꿈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불가능한 꿈이다. 그래도 불가능한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영원을 산다. 이런 불가능한 꿈, 영원한 ‘사랑의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진화하고 역사는 진보한다.

‘사랑의 길’을 걷는 교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섬기는 법을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일이다. 훌륭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사람에게서 찾고, 평범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프로그램에서 찾았다고 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람’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좋은 교사는 자기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반철환 시인은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온전히 키우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늘처럼 모시려는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다. 온몸 낮추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리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나날이 성장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가 있을 뿐이다.”

영국 서머힐학교 설립자 니일(Neill)의 메시지다. 그렇다. 남 탓이 아니라 곧 내 탓임을 절절하게 깨우치게 하는 말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문제아’라고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부터 보지 말고 동기와 과정부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차별하고 예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염려

하는 문제들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거나 어른들이 벌써 빚어놓은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 어찌 한 아이들 두고 ‘문제아’니 ‘부적응아’라는 말을 쉽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그냥 ‘새로운 질문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새로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학교는 이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아이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명약이다.

은 교육’이다. 걸 현상만 보고 차별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학교는 이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아이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명약이다. 사랑의 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배

움과 성찰을 요구한다. 배움과 성찰을 멈춰버리면 ‘꼰대’가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움과 성찰을 멈추지 않아야 비로소 ‘어른’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한 어른으로서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야 한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②

배움의 속도와 성찰의 방식이 다 다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것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 욕망, 감정, 의지, 지성을 지닌 전인적인 존재다. 한편,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존재다. 배움의 속도와 성찰의 방식도 다 다르다. 물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이 사실만 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이들을 더 행복한 ‘봄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력 신장이나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교육이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부와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런 교육은 벌써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에 불과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은 벌써 ‘죽



여태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여태전 교장 선생님은 양산 개운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산청 간디고 교사, 교감, 창원 태봉고 교장을 거쳐 지금은 남해에 위치한 상주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며 그동안 꿈꿔왔던 대안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저서로는 간디학교에서의 경험을 담은 대안교육 연구서 『간디학교의 행복찾기(우리교육)』와 대안교육 실천사례를 묶은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여름언덕)』, 시집 『꿈이 하나 있습니다(청운문화사)』가 있다.

공립 대안학교_ 강원 가정중학교 우리는 좋은 이웃, 우리가 희망이다!

강원도 춘천시 남면 여우내길 20번지, 가정중학교(교장 이수광) 교정에 봄꽃이 활짝 피었다. 이곳은 공립 대안학교로 지난해 개교했다. 문화예술 체험, 노작과 자연, 마음공부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들은 더불어 사는 삶, 인간 존엄의 동등성이 지켜지는 삶에 대해 배우는 중이다.



봄별 따사로운 교정, 키 작은 나무 앞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카메라 뷰파인더를 응시하는 한 아이와 만났다. 2학년 안수현 학생이다. “오늘은 텅 비어 있는 배경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놓아서 찍어볼 거예요.” 취재팀이 가까이 다가가자, 수현은 비로소 사진기에서 눈을 떼며, 수줍은 듯 말했다. 수현이가 이번 학기에 선택한 예술감성 수업의 사진(심화)반 활동. 이날 수업의 주제는 ‘알아두면 재미있는 렌즈세상’이다. 사진반을 지도하는 송미영 교사는 “수현이는 사진구도 잡는 법에서부터 피사체와의 교감 등 지난 1년 동안 사진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무척 깊어졌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사물놀이 수업이 한창인 함성마당(강당). 최수연 학생을 비롯한 유찬·다운·다정(2학년), 이랑·연우(1학년) 등 학생들이 김정민 교사의 지도로 북채를 두드리며 한껏 흥을 돋우었다. 이 신명 넘치던 장면을 담은 사진기자 앞에서 연신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어보이던 수연이. 기자에게 귀엣말로 속삭이던 미래의 꿈은 소아과 의사, 혹은 수의사란다. 그 꿈을 키우게 된 계기를 묻자 수연인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강아지도 좋아하니까요.”라고 했다.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셋...” 두런두런방에서는 댄스스포츠의 기본 동작을 익히려는 효신·나현·서현·재민이 등 1학년 학생들의 젠 발놀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우내길에 봄꽃 피다

지난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문을 연 가정중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7~8교시를 ‘예술감성’ 수업으로 진행한다. 사진반과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외에도 플라워아트, 아카펠라, 문예창작, 자전거여행, 메이킹필름 등 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술감성 수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 특히 새 학기에는 학생들의 자아탐색은 물론 이 수업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 배양 등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힘도 함께 길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광 교장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헤민(가명)이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예술감성 수업을 거치면서 헤민이는 지난해 학교생활에 누구보다 잘 적응해 주었다고 한다. 현재 가정중의 전체 학생 수는 72명. 내년 신입생까지 들어오면 총 108명 정원이다. 학년별 3학급으로, 강원도 전 지역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3월 6일은 ‘여우내길에 봄꽃 피는 날’이었다. 올해 신입생 입학식이 열린 날이다. 가정중에서는 올해부터 입학식 행사를 ‘봄꽃 피는 날’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4월 28일 치러졌던 개교식 이름은 ‘여우내 새길 여는 날’. 여우내길은 가정중의 도로명 주소다.

“이 ‘봄꽃 피는 날’, 저희 가정중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부모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선물 같은 존재인 우리 아이들에게 ‘존엄의 동등성’이 보장되는, 인간적 질



1. 노작과 자연 시간
2. 이수광 교장선생님



마음의 치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지난 1년, 가정중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의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성장하고, 또 변화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 교장은 “인문학적 토양은 물론 ‘인간의 존엄’에 대해 폭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학습의 효과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를테면 제주 4·3과 4·16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그 역사적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 가정중 학생들은 이날도 열린 토론을 펼쳤다. 여성의 날이 제정된 유래, 그리고 왜 여성의 날이 중요한지 등등. 아이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운동과 연결하여

선생님께 질문하고, 또 토론을 이어갔다. 이곳 아이들에게 교장실은 또 다른 학습공간. 수업시간 외에 수시로 들러 교장선생님과 함께 신문을 읽곤 한다.

목요일 오후에 있는 ‘노작과 자연’ 프로그램(6~8교시)도 가정중의 대표적인 교육과정 중 하나다. 아이들은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의 치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배운다. 이렇게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을 수확하여 늦가을에는 직접 김장까지 담는다. 또 목공과 도예, 요리, 옷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도 이 수업시간에 이뤄진다. 학교 현관 입구에는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의 노고와 솜씨가 깃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곳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공간. 어느새 한 뼘씩 더 성장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상상을 담은 ‘대안교육’

“그동안 교육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대안교육은 그 개념이 다소 왜곡된 측면도 없지 않았어요. 흔히 대안학교 아이들 하면 제도교육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교육수요자로 여겨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안교육은 이제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상상을 담아내는 하나의 틀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서로에게 존엄한 존재가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수광 교장은 앞으로 공립 대안학교인 가정중학교가 미래형 대안교육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회의 때마다 외치곤 한다는 슬로건을 소개했다.

“우리는 좋은 이웃, 우리가 희망이다!”

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따뜻한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요.”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이자 아이들의 삶의 공간. 그런 만큼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 가정중학교에서만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가 빛나는 존재여야 한다고 이 교장을 비롯한 학교의 전 구성원들은 믿고 있다.

학교, 관계를 통해 자아를 빛는 배움터



정글북, 구름방, 소나기방, 소행성 드림방 등등. 가정중에서는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이름도 새롭다. 정글북은 도서관의 또 다른 이름. 오전 8시 30분,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율적으로 독서를 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한다. 강제성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책 읽는 자유시간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루를 연다고 이 교장은 귀띔했다. 구름방과 소나기방은 위클래스

센터의 상담 공간. 이 방은 아이들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주로 찾는 곳이다. 이 외에도 성장통, 오션지, 더불어숲, 두런두런방 등 예술감성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들마다 예쁜 이름의 문패를 달았다.

공립 대안학교인 가정중은 두 개의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양한 대안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다양성 그룹(30%), 또 소년소녀 가장·학교 부적응학생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전형(70%)이 있다. 개교 2년차를 맞이한 가정중으로서는 이 두 그룹 학생들이 조화를 이루며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학교는 관계를 통해 자아를 빛는 배움터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도 삶을 설계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의 공동주인으로서 참여와 책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요.”

- 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4. 사물놀이
- 5. 6. 도서관 정글북
- 7. 가정중학교 전경
- 8. 노작활동을 하는 텃밭
- 9. 학생들의 전시된 작품



‘다름’에서 ‘어울림’으로

매년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 다문화교육 사업을 운영한 학교들이 모여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를 연다. 2017년 성과보고회에서는 각 사업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실시하고, ‘우리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다문화교육 전문가들과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현장에서 보다 나은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1년간 노력했던 흔적을 들여다본다.



‘다문화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2017년 다문화교육 포럼에서 가장 많이 오갔던 말이었다. 2006년 만 명도 되지 않던 다문화학생은 11년이 지난 2017년 109,387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잠재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지원해 오고 있다.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한국어교육,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제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진안 주천초교의 ‘더딤 없는 다꿈 교육’

2017년 전국의 24개 학교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세 가지 연구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주천초등학교(교장 양금옥)

의 ‘더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더딤 없는 다꿈 교육’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제고 관련 연구주제를 수행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천초교는 전교생 36명 중 다문화학생이 17명(42%)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다.

그런데 2016년 자체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전체 더딤(학습부진) 학생 중 55.5%가 다문화학생이었다. 또 1~2학년 다문화학생 4명 전원이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초학습에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주천초교는 이 더딤 프로그램으로 더딤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더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더딤 없는 다꿈 교육’에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교재를 활용했다. 이는 다문화학생이 주로 어려워하는 교과 개념 및 어휘 등을 쉽게 풀어 쓴 교과 보조교재이다. 주천초교는 여

기에 수업 시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각 단원별로 ‘어휘야, 놀자!’ 차시를 새롭게 추가, 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더딤 학생들은 유아시기에 한글에 노출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학습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기됐다. 이 문제는 그림책 활용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림책을 매개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자를 읽을 수

어 맞춤형지원도 추가해야 했다. 나아가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도 서둘러야 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으면서 동성중은 ‘다문화교육 주간’을 별도로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캠페인이 전개 됐다. 다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자는 취지로 소식지도 발간했다. 학생들은 점심

주천초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더딤 프로그램

1. 저학년 한글교육
2. 영어교육
3.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교재

다문화 중점학교인 천안동성중학교

4. 다문화 공감교육
5. 세계 전통의상 체험
6. 세계 다양한 디저트 체험



있도록 더딤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 ‘더딤 없는 다꿈 교육’이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함께 필요했다. 학교에서는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지역 내에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로써 주천초교 다문화 더딤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시기도 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다, ‘컬러풀 동성, 다채로운 동성’

지난해 다문화 중점학교 지원 부문에서는 천안동성중학교(교장 서한석)의 ‘컬러풀(Colorful) 동성: 다채로운 동성’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동성중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학생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한국

시간을 활용해 세계의 다양한 디저트 체험에도 나섰다. 또 1학년 학생들은 가정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세계 전통의상을 입어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시간도 운영했다.

특히 교과교육에서는 1학년의 경우 4시간, 2학년은 11시간, 3학년은 17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했다. 동성중 학생들은 이 ‘컬러풀 동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80% 이상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였다’, ‘나의 특기 적성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학업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프로젝트 참여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중학교 이미리 교사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 외에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1학년 대상 다문화 공감교실, 또 多Dream 특기적성 이중언어(중국어) 교육 등 ‘컬러풀 동성’ 프로젝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②

다문화교육은 우리 모두의 교육이다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9,57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가 109,387명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2%에 이른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4.2%로 조사대상 58개국 중 53위를 기록하였고,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출신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의 다문화 인식이 성숙되는 속도가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우리사회의 미래를 그려나갈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업에 스며든 다문화교육

흔히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이란 학생 개인의 민족·언어·종교 등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다수와 소수가 어울리기 위한 교육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우리 사회는 전 지구적인 세계화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7년 100만 명 수준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약 두 배로 증가하여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우리나라 학교환경도 최근 10년간 급격히 변화하였다. 2006년 처음으로 교육부 다문화교육 정책이 수립되었을 당시, 국내 초·중·고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만의 것이 아니다. 다문화교육은 학생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슬로건처럼, ‘다문화교육은 우리 모두의 교육’인 셈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2014년부터 ‘다문화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2년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 중점학교는 전국 318교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 외국인 수용성 등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다문화 중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 초기인 4월에는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74.58점으로 일반학교와 비슷하였으나 11월에는 77.81점으로 향상되는 등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효과성이 도출되었다.

이밖에도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연구학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및 유치원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집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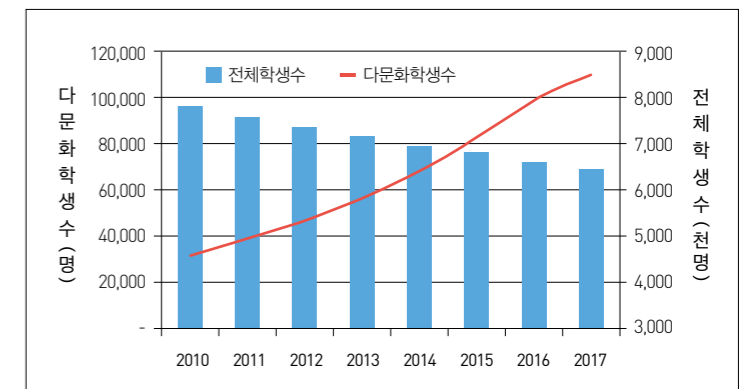
학교를 바꾸는 다문화교육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그렇지만 학교환경의 변화를 이끄는 데는 무엇보다 학교관리자와 교원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학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이 착근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시·도교육청과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연수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11,872명

의 교원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연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심화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다문화교육지원단 소속 교원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연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10여 년 넘게 지속되면서, 낯선 개념이었던 ‘다문화’가 어느새 학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다문화학생을 특별하게 구분 짓는 교육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학교에서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교육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②

표. 전체학생 및 다문화학생 증감 추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촉촉한 학업중단예방체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사례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란 새로운 사회적 과제는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찍이 인구감소를 겪었던 선진국들이 낙오자 없는 교육, 다문화교육에 힘을 쏟아 온 것은 한 사람의 학생도 소중하게 키우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부 위주의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자,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 또한 그 안에 매몰되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거나 말썽을 피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고민은 ‘나 나중에 뭐 먹고 살지.’이다. 우리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가 너무 견고하고 다양한 교육적 시도에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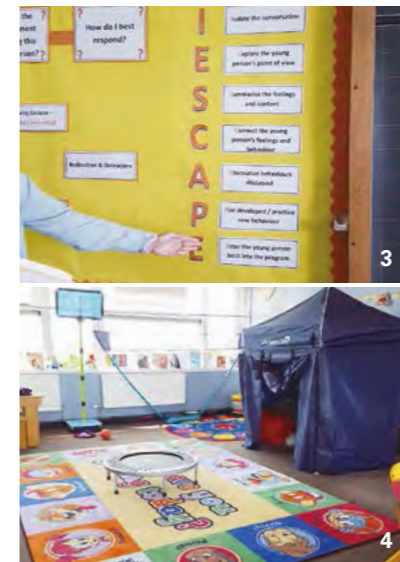
잉글랜드, 학업중단예방체계 PRU

본고에서는 학업중단예방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온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 사례를 주로 살펴보겠다. 잉글랜드 교육은 매우 경쟁적이다. 고급 사립학교부터 대안학교가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학업중단예방체계는 PRU(Pupil Referral Unit)¹⁾이다. 교육자치제는 퇴학 위기 학생에게 PRU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런던의 모든 구별로 초등(5~11세), 중등(12~16세) PRU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런던에 자치구가 32개인 것을 감안하면 64개 PRU가 있는 셈이다.

필자가 직접 방문했던 윈즈워스구에는 치료형 PRU가 하나 더 있었다. 윈즈워스구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초등 PRU의 경우, 관내 6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4,000파운드인데 지역 당국은 학교예산의 일부를 각 학교의 전년도 PRU 의뢰자 수를 고려하여 학교로 교부하지 않고 미리 PRU 예산으로 확보해 놓는다. 윈즈워스구 초등 PRU의 직원은 28명이며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운전사, 보조

1) 잉글랜드의 PRU(Pupil Referral Unit)는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또는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지원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1.2. 잉글랜드 윈즈워스구 초등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3.4. 애착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스코틀랜드

교사, 교사, 학습 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교장, 교감 외에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학생은 연간 120명 정도를 수용하며 연간 3학기를 운영하고 보통 2학기를 마친 후 복교를 한다. 하루 기준으로 볼 때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약 40명가량이 이용하며 그룹은 최대 6명을 넘지 않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 그룹으로 편성할지, 일대일로 지도할지를 결정한다. 학생은 오전 또는 오후 주2회 방문이 기준이지만 학생의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절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학습능력과 관계적·정서적 문제이며 이를 위한 환경과 시설, 인력이 제공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16~18세 청소년 데이터 허브 구축

반면, 통합교육, 통합학제를 지향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초, 중, 고교가 모두 한 종류의 학교이며 대안학교도 거의 없다. 학교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 역시 학교에서 맡고 있다. 스코틀랜드 경제 중심인 글래스고 지역에서 특별히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강하다. 이는 초기 애착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초등학교에서는 교감 2명, 교사 1명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었다. 4학년 이상 위기 학생은 매일 오전 교감선생님 교실에 모여 수업한 후 각자 자기 교실로 간다. 교감선생님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기학생을 선별하며 그룹, 또는 일대일로 학생을 케어한다.

1~3학년의 위기학생은 독립된 학급을 편성하여 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힘든 아이들이라 어려운 업무이지만 아직은 헌신적인 교사들이 많아 가능하다고 한다. 공립학교도 평생 전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책임성이 높다.

또 다른 남자 교감 1명이 보다 위기가 심한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교실은 인근 학교 위기학생까지 함께 보살피는 지역 당국 지정 학교이다. 2개 학급에 12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지역 당국이 학생의 교통편과 교사 월급, 운임비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학교에서 포용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딘버러시의 23개 중등학교 중 1개는 남자 퇴학생을 위한 학교, 대안초등학교 1개, 자살위험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학교 1개가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정말 촉촉하다는 것은 16~18세까지 청소년의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은 16세까지 12년간의 무상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18세까지 무상교육을 제공 받는다. 16세 이후 18세까지 대학준비나 직업교육·훈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청소년 개인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을 어느 국가보다 중시하지만 위기 청소년을 도우려는 교육복지적 노력의 결정체로 보인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모두 교육체계 내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촉촉한 학업중단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㉞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웁니다”

작은 학교가 유독 많은 강원도. 1982년 이후 강원에서는 446개의 학교가 사라졌다.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도시의 학교로 진학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자 마을도 조금씩 황폐해져갔다. 빠르게 감소하는 학생 수 문제는 강원도의 큰 고민거리로 교육청은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학교혁신을 뿌리 깊게 하는 힘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1

- 1. 마을선생님과 아이들
- 2. 교실로 들어간 마을선생님의 한국사 수업(영월고)
- 3. 마을의 지원으로 학교에서 진행한 천체관측(영월고)



2

3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의 여러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의 공간, 역사, 사람을 알고 사랑하며 마을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2017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고 연구회,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였다. 즉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모든 곳이 마을교육공동체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학교협동조합(체인지메이커)’, ‘행복교육지구’ 4가지 사업이 촘촘히 맞물려 돌아가며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

‘온마을학교’로 지역사회가 뭉쳤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공동체인 ‘온마을학교’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이다. 춘천 드림지기 학부모는 신남초 학생들과 학교 텃밭 가꾸기를 비롯해 드림산 생태교육, 마을 사진전 등을 진행하며 나고 자란 마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강릉청소년마을학교 ‘날다’는 지역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인문학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교,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교과서 밖, 학교 밖의 배움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첫째 12개 온마을학교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 개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

한 분야의 마을선생님을 위촉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 및 창체시간에 협력교사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강원 지역의 특징과 문화적 정서를 고려하여 춘천, 원주, 강릉지역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도시형’ 마을선생님(785명)을, 영월, 평창, 홍천, 화천 등의 지역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원형’ 마을선생님(1,267명)을 위촉하였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역 멘토인 마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과 생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와 마을선생님 간의 적극적인 협력은 교육효과를 배가시킨다. 영월고등학교는 한국사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배우면서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마을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수업으로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과학 ‘태양계와 지구’를 배울 때는 별로마천문대의 서지나 마을선생님이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다. 마을선생님의 지도로 과학교과서를 벗어나 실제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을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배움’에 한 발 다가간다. 그리고 배움은 ‘읽’에서 그치지 않았다.

‘읽’과 ‘삶’을 연결하다

‘읽’과 ‘삶’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체인지메이커’이다. 체인지메이커는 체인지(Change)와 메이커(Maker)의 합성어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원도교육청에는 현재 10여 팀의 청소년 체인지메이커가 활동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행정희 주무관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곳을 떠난다. 우리 이곳에 남아서 강원도를 새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일꾼을 키워내야 하는 숙명이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필요했고 그것이 체인지메이커”라고 소개했다. 체인지메이커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생소한 선생님들에게 교사연수나 한 번 해보라고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사내고 체인지메이커 교사 1호로 불리는 유은숙 교사는 이날 이 연수를 통해 체인지메이커가 지역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학교로 돌아와 바로 ‘체인지메이커’를 준비했다.

매주 수요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교사 체인지메이커 연수를 진행하여 문제 찾기, 공감하기, 솔루션 찾기, 행동하기, 퍼뜨리기 등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본 뒤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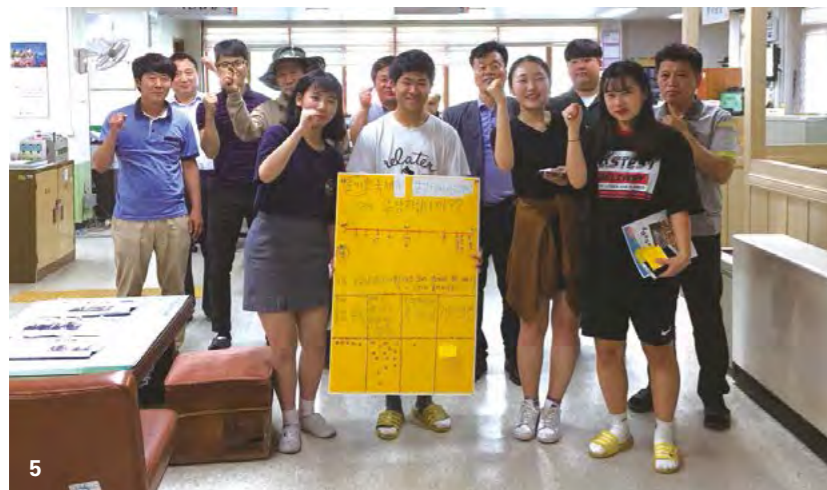
교사 내부 협의를 거쳐 각각 교과목에서 마을을 더 깊이

알고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시켰다. 수학시간에는 마을 관광 통계를, 일본어시간에는 마을 홍보 영상을, 과학시간에는 마을 식물사전 만들기를, 그리고 학생 동아리활동으로 ‘사내 온마을학교 텃밭’ 등을 운영하였다.

지역문제 해결하는 우리 ‘체인지메이커’

사내고 체인지메이커가 첫 관심을 보인 문제는 바로 축제 때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였다.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현장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설문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시민의식의 부재와 쓰레기통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을축제 중의 하나인 화천 산천어축제에 적용해 보았다. 쓰레기통이 위치한 곳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고 쓰레기 관련 이벤트와 UCC를 만들어 SNS 홍보 계획을 세워 화천군청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야 했다. 첫 도전은 쓰디썼지만 그 과정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았다.

이후 화천 토마토축제에 참여해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를 겸해 마을 어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토마토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3배 이상 늘었으며 매출도 역대 최대였다. 김연홍(3학년) 학생은 “처음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할 때는 막막했다. 어른들



4. 사내고 텃밭 동아리
5. 마을 어른들과 함께 하는 체인지메이커 캠페인(사내고)
6. 지역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아이들(사내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이 총동원되어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아는 것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가져와 해결해 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을 만나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작은 결과물들이 쌓이면서 이제 ‘실패해도 괜찮다’는 구호를 외치며 친구들과 힘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학교 앞 도로에 등을 설치했다. 학교 앞 도로가 너무 어두워 불편했던 학생들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브리핑을 했던 것. 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냈고 지상 등은 농작물의 피해를 우려해 바닥 등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전 세계에는 3천여 명이 넘는 사회혁신기업가들이 있다.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크든 작든 행동을 통해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더 큰 문제에 도전하는 계기가 된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이 총동원되어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아는 것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가져와 해결해 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마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⑦

사내고 체인지메이커 1호_ 유은숙 교사 “앓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에 체인지메이커가 있었다”



Q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마을선생님의 도움으로 ‘사내 온마을학교 텃밭’ 동아리를 운영했다. 수박, 옥수수, 배추 등을 재배해 옥수수는 판매하고 배추는 수확해 김장을 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쌀과 함께 전달해 드렸다. 마을 어르신도 아이들도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텃밭을 통해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노작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Q 체인지메이커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이들이 처음 관심을 갖고 도전한 것이 축제 후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였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을 찾다니고, 어두운 통학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브리핑도 자처하였다. 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아이들이다. 이것이 바로 앓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런 아이들의 열정에 사내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Q 체인지메이커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사는 촉진제와 같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놀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지만 마을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른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다 한 거야”라고 말하지만 고비마다 교사가 제공하는 소스나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계기가 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곤 한다.

학생,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독도 사랑 실천 “대한민국 독도를 배웁니다”



1

“독도”라는 명칭은 돌섬을 의미하는 경상도 사투리 발음인 ‘독섬’에 비롯된 거예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그 주변에 큰가제바위, 삼형제굴 바위, 촛대바위 등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되어진 화산섬입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간 독도전시관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종 독도전시관을 둘러보는 학생들에게 윤재국 새롭고 교장(겸 세종시 독도전시관장)의 설명이 이어진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세종 독도전시관은 새롭고등학교에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학생 및 시민들에게 살아 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독도 관련 전시물을 구성하였다. 특히 학교 내에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독도 간접체험, 독도의 자연 및 생태계 자료와 연계한 독도 디오라마 설치 및 구성 등으로 독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과정과 '16년 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전시하여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리고, '2017 독도 바로알기교재'를 함께 전시하여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교 로비에는 독도 관련 사진 50여 점(이정호 사진작가)을 전시하여 독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독도체험활동을 새롭고의 독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학생 및



1. 3. 세종 새롭고 학생들이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교생이 독도 수호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있다.
2. 대한민국 독도 이사부길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전시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에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시정 촉구대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새롭고의 모든 학생이 독도 수호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독도지킴이를 자청하는 윤 교장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분별력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독도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

고 김윤진(1학년) 학생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도 전시되어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독도를 알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려야 한다.”며 “독도동아리에서 활동하며 SNS를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땅 독도사랑’ 계기 수업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우리 땅 독도사랑’을 주제로 계기 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이 강화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공개하는가 하면, 도쿄 중심지인 히비야공원 내에 독도영토주권 전시관을 개설하였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토·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18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생활 속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4월 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



3



4. 세종 독도전시관장을 겸하고 있는 윤재국 교장이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독도전시관에 전시된 일본교과서
6. 가상현실을 통해 독도 간접체험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운영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50일간 운영하며, 전시물을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설명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 독도 체험관에서 다양한 독도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독도 사랑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 기존의 독도 바로알리기 교재의 학생 활동을 구체화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독도바로알기 교재를 개발하고, 놀이 중심의 학생용 독도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에듀넷-티클리어 및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누리집 등에 보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도 확대 운영한다. 독도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중심의 실천적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30개의 연구회를 지원한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한 독도 사

랑 내용을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독도체험 발표 대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독도 교육주관을 활용한 실천적 독도체험 활동 등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독도 사랑 실천을 유도하며, 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화가 가능한 독도체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학생 참여형 독도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체험 중심 독도교육 확산을 위하여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90개교(초교 3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교 30개교)의 독도지킴이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난 4월 15일 독도지킴이학교 발대식이 개최된 바 있다. 독도지킴이학교의 독도지킴이들은 독도 영토수호 캠페인, 동해·독도 표기 홍보 등 독도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학생과 시민 대상으로 독도영토 주권 수호 활동을 펼치며, 독도탐방 및 독도 관련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독도지킴이로서 자긍심과 독도 수호 실천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㉞

으로 정해 체험활동 중심의 독도교육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독도 체험처를 발굴하여 안내한다.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생, 시민 모두가 체험을 통한 독도수호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개최한다. 독도전시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개최되며,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실상과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중심으로 전시물을 구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 ‘모두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뛴 때, 어떤 이는 특정 지역의 집을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다. 부동산에 문외한인 나는 ‘그게 합리적 결정일까?’라는 의심을 했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적절히 거래가 뜨거울 때 적당한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적멈춤’을 해야 한다. ‘최적멈춤’이란 총 기회 중 약 37%정도에서 최선인 것을 고르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는 아마존을 들여다보자. 아마존은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해 정렬해두지 않고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을 꺼내기 쉬운 곳에 죄다 쌓아놓는다. 물건을 버릴 땐 옷장의 옷이든 서재의 책이든 가장 오래 동안 쓰지 않는 것(LRU: Least Recently Used)부터 버린다. “32자리 정수 100만개를 정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구글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의 질문에 “거품정렬(옆에 인접한 것끼리 비교하며 추리는 정렬)을 쓰면 안 될 것 같군요.”라고 태연히 대답한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대답 등등. 위의 일련의 이야기는 필자가 최근 매우 재미있게 본 책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에 나오는 사례들이다.

이 책이 유독 필자에게 더 흥미로웠던 이유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지원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가장 많이, 때론 신경질적으로 들었던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을 가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컴퓨터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에 꼬리를 무는 대답과 토론은 응당 길어진다.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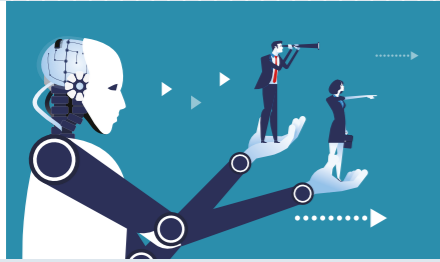
필요한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라는 필자의 대답에 “컴퓨팅 사고력이 뭐예요. 비판적 생각과 문제해결력 그런 거면 꼭 정보교사만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라는 대답이 따라온다. 왜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걸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효율적 문제해결 과정엔 기계와의 협업이 있다

세상에는 흑과 백으로만 나뉘고, 정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는 별로 없다. 하물며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주체들, 아니 객체(사물)들까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계와의 협업이 있다. 합리적 결정에는 반드시 증거에 기반 한 과학적 판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탄탄한 조직 문화가 있다. 필자가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도 이 모든 과정 곳곳에 ‘컴퓨팅 사고력(CT)’이 긴요함을 느낀다.

전공자 수보다 10배 많은 컴퓨팅 관련 일자리

물론 ‘일상의 모든 문제를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이라는 말은 거창한 책 제목으로나 좋을 뿐, ‘모든 이’에게 ‘시급하게’ 와 닿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국가적 현안인 가운데 전 세계의 일자리는 점점 더 개방되어 가는 경제 현실에서 컴퓨터 전공자 수보다 최소 10배 이상 컴퓨팅 관련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 기회이자 위기를 잘 활용하려면, 나아가 양극화로 대다수가 빈곤해지는 그



상황 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필수역량이라는 컴퓨팅 사고력을 가급적 많은 이들이 하루 빨리 습득해야 함은 자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의 컴퓨터 교육계에서는 컴퓨터 전공자들의 희소성과 높은 몸 값(미 캘리포니아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평균 급여는 9만 달러 수준임)으로 정작 중요하나 박봉의 교육현장에서는 컴퓨터 전문가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오랫동안 두터운 전문성과 굳건한 체제를 구축해온 기존 교과의 구조에서 어렵사리 틈을 만든 신생 교과가 (학교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기는 너무나도 지난한 현실이다.

디지털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실 매우 빠르게 돌고 있어도 그 속에 있다 보니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가늠도 되지 않는 기계시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그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한가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주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CS for all)’을 표방했고, 오바마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과 지원 예산을 중단시킨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경쟁력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품질 STEM과 컴퓨터 과학교육에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지시”하고, 매년 2억 달러의 예산을 여기에 지원토록 승인을 받은 것은 컴퓨터 과학교육의 시급성 앞에는 이념도 의미 없음을 잘 보여준다. 아시아 경제를

좌우하는 중국과 인도 역시 컴퓨팅 사고력과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합하여 혁신 생태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최근 개혁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4,200개 이상의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천개 이상의 하이테크 인큐베이터들이 육성되었으며 40만의 중소 과학기술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극성스러운 타이거 맘들의 코딩교육 열풍과 모든 이에게 첨단기기 활용 활동을 개방한 대학과 지자체의 민첩한 대응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인도 역시 2013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등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2,400개 이상의 ATL(Atal Tinkering Labs)을 만들어 학생들의 과학적 기질과 창의적인 사고 방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커리큘럼과 교과목의 정해진 패턴을 뛰어넘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실습을 하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예비 교원

그렇다고 선진국의 사례만 소개하고 그쳐야하는 실정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2015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교(17차시)와 중학교(34차시)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하도록 개정 후 필수화가 시작되는 올해 시행을 위해 3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사업 및 대대적인 교원 연수, 컴퓨터 개선·무선통신망 구축 등의 교육환경조성 사업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의 협업 지원을 받아 1,597개교의 선도학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소양함양), 심화(교구활용 및 교수학습 방법), 핵

올해는 예비교원들, 특히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되는 교대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갖추고 모든 교과에서 이에 기반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이 시작된다.

심교원(SW기반 타 교과 융합교육 방법 연수 등), 전문연수(Master Teacher, 교원지도 역량강사 양성) 등 다양한 코스의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예비교원들, 특히 모든 교과를 가르치게 되는 교대생들이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갖추고 모든 교과에서 이에 기반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도 시작된다. 특히 이 SWEET 사업은 모든 예비교사가 여러 교과의 주제들을 가지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SW(컴퓨터과학)교육은 적은 시수와 전문교사의 부족, 단순 코딩교육으로의 오해 등 여러 제한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컴퓨터 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우리의 ‘코딩 열풍’을 주목하는 시각에는 우려와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급변하는 하이테크 기술의 시대에 미래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특정 언어로 코딩을 배운다 한들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 것인지, 공교육의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고액 사교육 열풍만 더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별별 추상적인 것까지 다 계산해 내는 인공지능 계산기인 ‘울프람 알파’를 만든 스티븐 울프람은 단순 코딩과 구별되는 컴퓨팅 사고력은 ‘모든 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질문을 하며 컴퓨터 식으로 구현하려는 방법을 찾는’ 활동들에 의해 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가 개최하는 여름캠프에서는 학생 주도의 다양한 그룹 프로젝트 활동



을 통해 매우 많은 일상의 질문들을 참신하게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한 모두가 영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 캠프에는 코딩에 거의 문외한인 학생부터 게임 만드는 것이 취미인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한다.

현명한 학부모들이면 한번쯤 사교육 프로그램들을 주체적 시각을 갖고 들여다 볼 일이며, 정부는 제도적 시수 싸움의 구도에 갇힌 모든 교육이 간헐 구도를 과감히 탈피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의 관심사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될 고교학점제에서 턱없이 부족한 SW교육이 다채롭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일대 혁명적 변화라 하는데, 당장 우리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까지는 못해도, ‘모든 교사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추진하고, 학교마다 미래세대의 디지털 삶을 준비시키는 디지털 팀을 두고 정보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게 함은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㉞

부산광역시교육청 **글로벌 문화체험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다!**



부산 해연중학교 학생 12명과 지도교사(윤은진)는 지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교육방문단에 참가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해연중 학생들은 해외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 견문을 넓혀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인도네



시아(수라바야)는 12년째 부산과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학생들은 중학교 2개교와 국제학교, 대학교 및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국제학교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교육포럼에 참여해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도네시아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우리와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수라바야시가 마련한 제1회 '시티페스티벌'에서 인도네시아 학생들로부터 배운 전통악기 연주를 합동 공연해 그 소식이 수라바야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한편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과 부산을 소개하고 탈춤, 태권무를 응용한 K-POP과 부산의 전통춤(시민대동춤), 탭댄스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해연중 학생들이 한국과 부산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번 글로벌 문화체험에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 문화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 해연중학교는 학생들이 모두 연결되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잠자는 악기를 깨워라!**



학교에서 쓰지 않고 잠자는 악기는 얼마나 될까?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악기뱅크 사업 중 하나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다른 학교에 보내주는 '잠자는 악기 깨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마다 발령으로 담당 선생님이 달라지고, 방과 후 수업이 바뀌고, 학생 수 감소로 동아리가 없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과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파악해 학교 간 협의에 따라 대여 및 관리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3월초까지 파악된 잠자는 악기는 880여 대 정도 강원도교육청은 악기뱅크를 통해 이 악기들이 바로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 1악기 연주 활성화를 위해 음악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예술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독서문예담당 이금이 장학관은 "학교의 악기구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악기를 서로 바꿔가며 쓸 수 있다면 예술교육도 한층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 학교에서 배우는 '동네방네프로젝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25일 미르초등학교 강당에서 세종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길잡이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동네방네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및 컨퍼런스(이하 동네방네프로젝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팀 몽실청년협동조합 소속 이한솔, 이예진 강사가 진행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구상 실습 강의 △프로젝트 소개 포스터 제작 △팀별 활동 계획 협의를 진행했다.

동네방네프로젝트는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지역배움터에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청소년 협동조합 프로젝트 △세종시 공동체미디어교실 협력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스스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한다.

특히, 팀별로 1~2명의 길잡이교사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주제성과 자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촉진자와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



게 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청소년이 마을을 기반으로 스스로 만드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실의 배움이 마을로, 마을의 배움이 교실로 넘나들어, 마을이 하나의 거대한 학교가 되어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동네방네프로젝트를 통해 공교육의 창조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벽화에 담긴 '장애인·비장애인 화합'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외벽에 이미 있는 대형 벽화가 들어섰다.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1월 2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공존'을 주제로 한 대형 타일벽화 제막식을 가졌다. 벽화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차별과 아픔 없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상적인 세상을 표현하고 고자하는 뜻을 담았다.

서양화가 김근태 화백의 UN초대전 '들꽃처럼 별들처럼' 작품과 전남 도내 초·중학생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직접 그린 작품 3천여 점으로 벽화를 구성했다. '들꽃처럼 별들처럼' 타일 벽화는 들꽃처럼 아름답지만, 무관심의 대상인 장애아를 별과 같이 밤하늘을 잔잔하게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 벽화는 장애인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비장애인에게는 '공감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교육청 모니터단 공개 모집, 열린 정책 펼친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올해에도 교육정책에 학생·도민(학부모)·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남 교육 모니터단' 616명을 공개 모집했다. 그동안 충남교육 모니터단은 2016년도에 641명/15회, 2017년도

에 612명/17회에 걸쳐 예산편성, 교권보호, 특수교육, 청렴도 향상 방안, 폐교 재산 활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다양한 교육 이슈에 관한 자유토론을 통한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하여 충남교육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니터단인 태안군 손현선(41세) 씨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니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접속이 간편해서 편리하다"며 "갑자기 떠오르는 교육정책 아이디어가 있을 땐 메모장에 기록하듯 번개같이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글을 남길 수 있어 편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며 학생중심의 참신한 교육정책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청년실업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의 청년은 15세에서 29세의 젊은이를 말하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 기준이 개편된 이후 가장 높았고,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이다. OECD(2016)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의 37%가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경험했고, 2016년 기준 대졸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4.6%이고 체감실업률은 0%에 가깝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사회에 내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정부도 청년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최근 추경 3.9조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취업을 유도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지

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혁신이 신산업의 창출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자동화(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로 인하여 일자리는 감소하게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WEF(세계경제포럼)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총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항구적인 실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팩토리 대표적 사례인 독일 암베르크 부품공장의 경우 26년전에 비하여 생산량은 8배 증가했으나, 일자리는 1,000개로 동일하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시오(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그룹의 영업이익은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존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방정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창업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의 성공방정식!

OECD(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창업 후 6년 이상 기업은 매년 일자리 손감소를 기록(연평균 -2.07%)한 반면, 5년 이내의 기업이 신규고용을 주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연 평균 +2.87%)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기업들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창업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을 기존기업 성장지원에서 창업기업 육성으로 전환 중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의 신엔진으로 대중창업·만중창신(大眾創業, 萬眾創新: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는 뜻)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감한 정부지원으로 창업에 동참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는 61.5만 명으로 전체 졸업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생의 89.8%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기준 790개로 대학 당 2개 정도에 불과하고, 졸업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8%에 불과하다. 실로 걱정되는 일이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자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하고, 청년들의 과감한 창업도전을 응원해야 한다. 창업의 성지로 각광받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춘을 비롯한 주요 창업국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중관춘에는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이, 핀란드에는 알토대학이, 독일에서는 베를린대학이 있다. 해외 유명 스타트업 단지는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창업가는 대부분 대학교 및 청년 때 창업을 경험하였고,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활동 지원(예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애플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구글 래리 페이지, 우버 트레비스 칼라니, 쿠팡 김범석, 티켓몬스터 신현성 모두 대학교 때 창업을 경험하였다.

최근 들어 창업전문가들의 가장 큰 질문은 “왜 우리나라는 유니콘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이다. 여기서 유니콘기업이란 상장하기 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의미하는데, 2017년 말 기준 세계 236개 유니콘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불과 3개이지만, 중국의 경우 무려 164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청년들 특히 대학생의 창업도전을 응원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2016년 기준 유니콘기업의 창업 당시 평균 나이는 32세이며 25세 이하 창업자도 21명이다. 이 중 재창업자 비중이 48%에 이르는 것을 보면 20대 창업도전이 글로벌 기업을 만든 핵심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은 평균 창업횟수를 보면 2.6회이다. 즉 3번 정도는 창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시절, 창업경험은 최고의 교육

필자는 학생들에게 실패하더라도 창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필자의 지도학생 중 한 명이 1회용 변기커버로 창업을 했다. 필자의

생각에 창업아이템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말렸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수출전시회에 나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연간 5천만 원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경영학과 학생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화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수출계약을 직접해보고, 고객들을 만나 협상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바로 이러한 인재 아닌가!! 창업 이전보다 창업 이후 학업성적은 더 향상되어 매학기 성적장학금도 받았다.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교수들이 원하는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다. 이후 필자는 지도학생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였고, 결과적으로 매년 1명 이상의 학생이 창업에 도전하여 꿈을 향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이 중 창업에 실패한 학생도 있는데, 창업경험을 인정받아 좋은 벤처기업에 취업하였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창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인지하여, 창업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강좌 몇 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들도 창업에 적극 도전해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수창업의 중요성은 비단 학생창업지원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보다 큰 중요성이 있다. 교수와 같은 고급연구 인력의 창업아이템은 복제가 쉽지 않고 인적네트워크가 우수하여 사전적으로 창업성공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일반기술창업에 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 기술창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9.5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평균인 2.85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지원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창

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능동적인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이 창업에 도전하더라도 승진이나 업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10만 창업인재 양성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앞두고 울곡 이이의 주장대로 10만 대군을 양성했다면 불행한 역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하여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부처 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창업지원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성장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고, 창업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창업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업·대학이 노력하여 5년 이내 10만 청년창업인재를 육성한다면, 청년일자리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뒤 학생들에게 ‘졸업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5명 중 1명은 ‘창업이요’라고 응답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⑤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창업지원본부장) 교수



고혁진 교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회사를 창업(1999~2008)했던 경험을 살려 대학 창업지원본부장과 창업지원단장을 맡아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인재 창업경험을 주목하라!』, 『손에 잡히는 기업가정신』(KEF), 『산학협력의 내일, 그 길을 말하다』(공감) 등이 있다. 창업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2013), 중소기업청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2016)을 한 바 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대학입시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권 교육의 종착지이자,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진출의 출발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의 위상과 존립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대학입시는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고차 방정식의 영역이다.

공교육 정상화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역사적으로 볼 때, 대입전형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적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왔는데, 최근의 흐름은 대학입학전형 간 소화의 기초 하에 교과와 비교과 전형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을 견지해 왔다. 무엇보다 학생 개인의 역량을 점수로 획일화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입시전형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적과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학교의 교육 활동이 수능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의미 있게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학생의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대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목적이 결합되어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10년 교육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율화와 다양화된 교육 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전격 도입한 제도로, 점수 위주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학생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비롯해 문제해결력, 창의력, 리더십 등을 평가의 주요 요소로 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전형은 수능과 구별하고 미래 우리 사회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재를 학교 교육을 통해 육성하기 위하여 고교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 지원동기, 인성, 관심영역, 노력과 열정 등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입시전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해당한다.

교사의 평가기록 신뢰 확보를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이 갖는 이

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별로 편차가 심한 감감이 전형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이다.

우선 감감이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교사의 기록에 대한 신뢰성과 교사별로 차이가 나는 역량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사람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입시제도이니 만큼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 교사의 평가와 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공정성과 기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주체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학 입장에서 인재 선발에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 입시 자료 생성에 공정성을 마련하는 정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기록을 교사의 자기소설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불신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수능과 학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수능과 비교해 학종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학종이 부모의 재력과 무관한 입시 전형이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교육과 학부모의 정보력, 기획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입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위에서 대입전형과 부모의 재력, 기획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하게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학생의 진정한 실력이외에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여건과 같은 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학종·수능은 전혀 다른 전형 아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학종과 수능이 전혀 다른 전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종은 점수로 획일화하는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이 학생의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목적 속에서 도입된 입시전형으로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대부분은 수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학종은 수능의 높은 점수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 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수능 이전에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정책은 대학 입시로 귀결되었고, 고교 교육과정은 대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대학 서열화가 강고한 우리 사회에서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고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생의 일상은 고통이 될 것이고, 학교 삶 자체가 입시의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게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방향으로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이 정점에 학생부종합전형이 있다.

학종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

학종은 기존 입시 전형과 달리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역량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교육 정책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입시전형이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입시전형과 달리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는 전형이다. 수능과 같이 문제 풀이식 수업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재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학교교육활동이나 수업 혁신에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고교 교육의 수업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종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교육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게 되고,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입시에 매몰되었던 고등학교의 학습 문화를 변화시키고 고등학교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학습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②

학종의 규범적 가치와 실현가능성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 입시 제도의 수시 모집 전형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운영되던 입학 전형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어떤 대학입시제도가 변별력을 가지며 보다 능력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 각 여론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입시제도가 규범적 가치를 지니면서 추진되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가 가져야 할 규범적 차원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쉽게 답할 수 있다. 대입정책이 가지는 규범적 가치는 학생의 복합적이며 잠재적 능력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해방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온 입시 제도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복합적 사고력을 묻는 평가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의 변화이다. 그러나 수능은 여전히 한줄세우기 성적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중등교육을 입시 교육으로 왜곡시켰다. 여기에 더해 대학은 잠재능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

를 발굴하여 대학 속에서 성장시키려는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다하지 않고 드러난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범적 차원에서 대입정책이 가져야 할 가치는 교과 점수위주의 선발이나, 내신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과, 비교과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함으로써 잠재가능성을 고려한 학생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변별력과 공정성 갖춘 입시제도 필요

그러나 학종이 가지는 이러한 규범적 가치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입시제도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변별력과 공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은 최근의 여론을 보더라도 강한 반대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학종에 대한 변별력과 공정성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이다. 학종의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입시제도가 어떤 철학을 구현하

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학생부 기록에 대한 신뢰 부족은 학종이 입시전형으로서 지속되는데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

실제로 많은 조사를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능을 가장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고, 가장 공정하지 못한 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꼽는다.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춘 수능 중심의 한 줄 세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수능 이전 시기의 학력고사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주관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정성 시비가 전혀 제기될 수 없는 점수로 인한 한 줄 세우기를 요구하며 학종 전형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부모의 능력에 좌우되는 비교과전형

그런데 학종이 가지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정환경에 따른 다양한 활동 경험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수능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능이

나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 영향을 미쳤지만, 학종의 비교과 전형을 위해서는 경제력과 함께 부모의 정보력과 기획력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입시 컨설팅 시장의 확대이다. 부모들은 학생의 잠재된 능력,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에 대한 사교육을 넘어서서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비하는 입시컨설팅과 학생부 관리를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잠재능력을 발휘할 가능성 자체가 제약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사교육을 통한 성적 상승이라는 측면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능에 비해 사교육이 보다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불공정한 입학 전형이다. 더구나 학종은 수능과 비교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상실하여,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하게 되어 대입제도에서 총체적 문제를 지닌 입학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종, 저소득층 명문대 문턱 높아져

그런데 학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선호하는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은 내신과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선호하고, 학종이 수



능과 비교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덜 받는 입시전형이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의 통계적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사교육 유발효과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있는 것처럼, 학종도 사회통합전형 등을 제외하고 보면 사회계층에 따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희망하는 소위 명문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관리를 위해 사교육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을 방지한다면, 학종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명문대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대 논란을 가중시킨다. 교사들은 수업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부를 충실히 기록해 주어야 하는 업무가 가중된다. 더욱이 신뢰도와 더불어 이를 기재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 게다가 학종을 위해 학교 간 차별화된 학교 교육 활동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학종의

학교 간 차이가 구조화되고, 학교정상을 위해 도입된 학종이 학교교육을 왜곡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학부모와 학생은 대학이 전형의 요소로 중시되는 교육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의 컨설팅을 받게 되고, 대학은 신뢰가 없는 학생부를 근거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학생 걸름망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강화하게 되어 총체적으로 학생의 부담이 강화된다.

전형 정보·소통의 부재로 입시 불안

학종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교수 학습 패러다임의 등장,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규범적 가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시전형의 다원화로 학부모들이 전형에 대한 정보와 소통이 부족하여 자녀를 어떻게 입시에 대비시킬지 불안해하고, 교사들이 학생부를 기존과 달리 어떤 방식으로 풍부하게 기록해 줄지 고민하면서 공정성에 회의를 품고 업무의 폭증을 토로한다는 그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학종이 보다 부담스러운 전형이 된다면 교육정책으로서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종의 규범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복합적으로 고려와 개선이 필요하다. ㉠

지난 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을 읽고

시간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건 안전이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절대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 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깨달았다.

- 모니터단 하양현

'온작품 읽기'의 가치

문학작품 교육에 있어 가장 난감한 부분이 '생략', '중략', '후략'이 아닐까 한다. 너무 긴 작품은 앞과 뒤의 줄거리를 요약해 제시하기도 한다. 온작품 읽기는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인성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부분은 중등교육에서 중시되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 모니터단 이지영

Event

표지이야기 '공동체'를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10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4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안순억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모든 아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학교 안전 제5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 본 이미지는 4회 수상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제

공모부문	비고
포스터	-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 ※ 등하교시간, 수업시간(체육, 미술시간 등), 점심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웹툰	-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 - 학교안전 공제제도 관련 내용 전반 (공제급여 청구 후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이용한 후기 등)
수기	- 글자모양: 중고딕 11, 줄간격: 160% 분량은 전체 6p 이내(공모내용 3p 내외)

※ 재난·재해 관련 내용 및 학교안전교육 우수사례 내용은 제외

응모 일정

2018. 4. 2. (월) ~ 5. 25. (금)

참가 자격

공모부문	참가자격	비고
포스터	유·초·중·고 학생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
웹툰	유·초·중·고 학생	3인 이내 팀 응모 가능
수기	유·초·중·고 학생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ssfcontest.com

제출 방법

공모부문	규격	기타사항
포스터	- 포스터 4절지 (394*545mm) - 손그림만 인경, 컴퓨터작품 접수 제외	- 현장심사 대상 작품의 경우에 한하여 실물제출 요구
웹툰	- 8컷 이상의 완결 스토리 (유치원생부터 초3학생까지는 4컷 이상 가능) - 그래픽 툴 작업 시 jpg로 제출 (가로550px, 세로: 제한없음) - 수기로 작업 시, 스캔하여 양식 내 삽입 후 스캔본 제출 (해상도300dpi 이상)	- 현장심사 대상 작품의 경우에 한하여 실물제출 요구 - 수상작은 작업 원본파일 제출 필수 - 제4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캐릭터 부문 수상 캐릭터 적극 활용 권장 - 웹툰은 양식 내 4컷씩 삽입 후 제출 - 주최/주관 로고 마지막 컷 삽입 필수
수기	- 글자모양: 중고딕 11, 줄간격: 160% 분량은 전체 6p 이내(공모내용 3p 내외)	-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시상 내역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포스터	유·초·중·고 학생	1명 (50만원)	2명 (30만원)	5명 (20만원)	10명 (10만원)
웹툰	유·초·중·고 학생	1명 (팀) (100만원)	2명 (팀) (80만원)	3명 (팀) (50만원)	-
수기	유·초·중·고 학생	1명 (50만원)	2명 (30만원)	3명 (20만원)	-
총 수상작수 (42작품)		5작품	10작품	17작품	10작품

※ 교육부장관상(대상, 최우수상),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상(우수상, 장려상)

문의 사항 운영사무국: 02-6395-3127